

말씀, 기도가 되다

시편 119 편과 함께하는 40 일간의 여름 돌파 여정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기간: 8 주간 (월-금, 주 5 일)

4 단계 사용 가이드

1 단계 | 오늘의 말씀 — "입술로 세 번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눈으로만 대충 읽지 말고, 귀에 들리도록 또박또박 3 회 이상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영적 유익: 하루 단 4 절입니다. 읽는 동안 스마트폰 화면 캡처나 메모 기능을 이용해 출근길이나 일터에서 수시로 꺼내 보며 내 영혼에 완전히 새겨지도록(암송) 하십시오. 활자가 내 눈을 거쳐 귀로 들릴 때 말씀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2 단계 | 묵상 — "내 일상의 스토리를 대입하십시오"

뻘하고 식상한 교리가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직장, 가정, 인간관계)에 이 말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볍고 직관적인 비유로 풀어낸 노트입니다.

영적 유익: "아, 맞다! 오늘 내 삶이 그랬지!" 하며 무릎을 치는 순간, 내 일상과 말씀의 주파수가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3 단계 | 기도의 초점 — "내 염려를 말씀의 길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내 감정이나 복잡한 계산을 늘어놓는 기도를 멈추고, 오늘 주신 4 절의 말씀이 지닌 '가장 날카로운 기도의 무기'가 무엇인지 영적으로 타게팅하는 단계입니다.

영적 유익: 중구난방으로 흩어지던 내 생각과 염려를 단숨에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이라는 정확한 과녁을 향해 기도의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4 단계 | 부르짖는 기도 — "굴방에서, 반드시 소리 내어 기도하십시오"

적혀 있는 기도문을 주문 외우듯 읽지 마십시오. 이 기도문은 기도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입니다. 반드시 입술을 열어 크게, 주먹을 쥐고 부르짖으며 선포하십시오.

영적 유익: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 내 영혼을 짓누르던 무기력과 염려의 결박이 깨어집니다. 가이드된 기도문으로 시작하여,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향해 5 분, 10 분 더 깊은 기도로 돌파해 나가십시오.

7월 예배 위원

안 내	박래석	최명희
기 도	박승화(5) 김근배(12) 한광기(19) 최명희(26)	

주일 예배 2026년 7월 12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이애림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 찬송가 70(신) 79(구)

*성시 교독 / 성시 교독문 54 번(시편 126 편)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빈 들에 마른 풀같이 / 찬송가 183(신) 172(구)

기도 / 김근배 장로

성경 봉독 / 디모데후서 4 장 1-8 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 박화신 목사

찬송 /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 찬송가 315(신) 512(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예부터 도움 되시고 / 찬송가 71(신) 438(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교 말씀 요약

-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전제조건적인 자기의 믿음의 본질을 말하지요. 다른 이에게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면 전혀 효력이 없을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코람 데오**입니다.
- 바울은 아주 단호한 표현을 사용하며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두가지 다 이야기하지요. 그것도 두번 반복합니다. 이것이 **코람 데오**입니다.
- 코람 데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싸움질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에게 내놓을만한 업적이 많았던 바울은 그저 단 한가지 자신합니다. 이것이 **코람 데오의 결론**이지요.
-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는 들을지어다.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말씀, 기도가 되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40 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 편 105 절 -

2026 년 7 월 13 일
Day 6 (월)

비방과 무시를 돌파하는 기도

오늘의 말씀 (시편 119:21-24)

<개역개정>

21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22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23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24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새번역>

21 주님께서는 오만한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저주 받은 자들은 주님의 계명에서 이탈하는 자들입니다.

22 그들이 나를 멸시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교훈을 잘 지켰습니다.

23 고관들이 모여 앉아서, 나를 해롭게 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은 오직 주님의 율례를 묵상하겠습니다.

24 주님의 증거가 나에게 기쁨을 주며, 주님의 교훈이 나의 스승이 됩니다.

묵상

직장이나 일상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말, 억울한 비방을 들으면 온종일 그 잔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어떨 땐 복수하고 싶고, 최소한 해명하고 싶어 속이 끓어오릅니다. 오늘 시인은 그러한 시간 한복판에서 기발한 방법을 씁니다. 사람들의 거친 소음을 내 입술로 맞받아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큰 소리로 읊조려 그 소음을 덮어버린 것이죠. 정말 그렇게 됩니다. 진정한 주님의 은혜이지요

기도의 초점

사람들의 평가나 억울한 시선에 마음을 빼앗겨 감정을 낭비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음성에 시선을 고정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주님! 나를 흔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세상의 거친 소리들로부터 내 귀를 닫아주옵소서! 억울함에 치를 떨며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하시고, 그 순간 오히려 입술을 열어 주의 말씀을 읊조리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기쁨의 확신이 되게 하옵소서!"

2026 년 표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 막 1:15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난 주 설교 요약

말씀,
기도가 되다

요 15: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는 흔히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아뢰는 시간으로 이해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이 기도로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침묵을 깨우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말씀 없이 오래 기도하면 어느새 같은 염려와 같은 욕심을 반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소망을 자신의 뜻에 맞추어 가십니다.

「말씀, 기도가 되다」는 새로운 기도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기도의 본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영적 훈련입니다. 말씀을 읽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읽은 말씀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 드리는 기도.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아는 성도를 넘어, 말씀으로 기도하는 성도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기도가 다시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뜻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말씀, 기도가 되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40 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 편 105 절 -

2026년 7월 15일
Day 8 (수)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내리는 결단

오늘의 말씀 (시편 119:29-32)

<개역개정>

29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30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31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32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새번역>

29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30 내가 성실한 길을 선택하고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언제나 명심하고 있습니다.31 주님, 내가 주님의 증거를 따랐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32 주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인도하는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묵상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적당히 요령 피우는 '거짓의 길'과 묵묵히 손해를 보더라도
걸어야 하는 '성실의 길'이 매일 우리 앞에 놓이죠. 시인은 성실의 길을 가기 위해 주의
규례를 자기 눈앞에 딱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내 좁은 시야로는 당장 이익이 되는
길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시면 비로소 멀리 보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기도의 초점

당장의 편법이나 타협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성실의 길을 끈기 있게 걸어갈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주님,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 없는 편법의 길을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내 좁은 안목과 닫힌 마음을 넓혀 주셔서, 오늘 내가 걷는 좁은 길이 마침내 승리하는
성실의 길임을 믿게 하소서. 어떤 유혹 앞에서도 말씀의 기준을 내 눈앞에 두고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기도가 되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40 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 편 105 절 -

2026년 7월 16일
Day 9 (목)

탐욕의 시선을 돌리는 정결한 기도

오늘의 말씀 (시편 119:33-36)

<개역개정>

33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34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35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36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새번역>

33 주님, 주님의 율례들이 제시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34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습니다.35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36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묵상

우리는 흔히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려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끝까지 지키기 위해" 가르쳐 달라고 구합니다. 조건 없는 전적
투항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내 이익(사욕)'을 향해 기울지만. 시인은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로 "향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탐욕으로
흘러가니, 성령의 강한 인력으로 내 마음을 강제 유턴시켜 달라는 절박한 비명입니다.

기도의 초점

내 생각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기도를 멈추고, 마음의 중심 자체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정결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더 가지려는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내 마음을 건져
주옵소서! 내 영혼의 시선이 썩어질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영원한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소서. 세상이 주는 안도감보다 주님이 내 마음에 부여주시는 정결한 평안을
더 갈망하게 하옵소서!

말씀, 기도가 되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40 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 편 105 절 -

2026년 7월 17일

Day 10 (금)

허탄한 신기루를 거절하는 능력

오늘의 말씀 (시편 119:37-40)

<개역개정>

37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38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39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40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새번역>

37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시시오.38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맺으신 약속,
주님의 종에게 꼭 지켜 주십시오.39 주님의 규례는 선합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비난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40 내가 주님의 법도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의로 내게 새 힘을 주십시오.

묵상

홍수처럼 쏟아지는 남들의 성공담이나 세상의 유행은 얼핏 보기엔 너무 멋져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탄한 '신기루'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내 영혼의 에너지가 야금야금 갇아먹힙니다. 금요일, 한 주간 치열하게 달려온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가짜에 빼앗겼던 눈을 돌려 진짜 생명이 있는 주의 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의 초점

영혼을 메마르게 만드는 세상의 허무한 유행과 중독의 시선들을 끊어내고, 내 영혼을 진짜 살아나게 하는 영적 에너지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주님, 이번 한 주간 내 눈을 빼앗았던 세상의 허무하고 허탄한 신기루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히 거절합니다! 내 영적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나를 살리는 주의 말씀의 길만을 똑바로 보게 하소서. 주말을 앞둔 내 영혼이 느슨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법을 사모함으로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옵소서!

말씀, 기도가 되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40 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 편 105 절 -

2026년 7월 14일

Day 7 (화)

진흙탕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기도

오늘의 말씀 (시편 119:25-28)

<개역개정>

25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26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27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울조리리이다28 나의 영혼이 놀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새번역>

25 내 영혼이 진토 속에서 뒹구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26 내가 걸어온 길을 주님께 말씀드렸고,
주님께서도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27 나를 도우셔서,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목상하겠습니다.28 내 영혼이 깊은 슬픔에 빠졌으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묵상

'진토에 붙었다'는 건 바닥이 보이지 않는 진흙탕에 처박혀 숨조차 쉬기 힘든 절망의 상태를 말합니다. 스트레스와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바닥으로 녹아내리는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내 의지나 긍정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때, 우리에게는 최후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듯 우리를 비상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의 초점

메마르고 지쳐버린 내 영혼의 무기력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진 강력한 소생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녹아내릴 것 같고 영혼이 바닥에 처박힌 것처럼 막막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무기력의 늪을 빠져나올 수 없사오니, 이 시간 나를 살리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내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나를 누르는 모든 영적 놀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